

남미 파라과이에서 이태호, 김미순 선교사가정 선교소식

주안에서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위의 말씀이 언젠가 주님 발앞에 서는 그날 까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나의 신앙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방해물들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것ियो, 날마다 이곳 선교지에 승리의 깃발과 승전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완벽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 마다 이곳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학교사역 >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움직이고 있는 학교를 바라보며 사역하는 것이 이곳에서 누리는 큰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선교”가 무엇인지 좀더 제 마음속에 구체화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선교는 “정직 + 땀 +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수학공식처럼 선교공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소원은 사단의 끝임없는 역사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점점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학교와 교회! 훗날 누가 이 선교지 사역을 이끌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움직이는 교회, 학교가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곳 세르(CER) 미션스쿨은 학사일정에 따라 많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독립기념일, 어버이날, 차코전쟁기념일, 친구의날, 어린이날, 파라과이 문화발표회, 학년별 발표회, 학기말 시험등 많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 찬양, 기도훈련으로 학생들을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곳 세르학교가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교회소식 >

주영광 현지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계속 영적으로 숫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가운데 여전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가족 성경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드리는 주일 어린이 예배는 계속 조직적으로 체계화 되어가고 있고 부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고로 많이 출석한 날은 58 명의 어린이들이 출석 했습니다. 이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부흥을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르 학교 시가행진



중,고등학교 과학 경시대회



어린이 날 행사



민속의 날 행사

<감사: 1. 선교차량 구입소식>

지난 5 월에 보내드린 기도편지에 이곳 선교지 차량 구입건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이곳 선교지 차량 구입에 대해 부탁 드렸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곳의 사정을 아시고 부산신일교회와 거제섬김의교회,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의 사랑의 헌금, 현지인 주영광교회 헌금, 저희 가정 선교사재정 일부를 합하여 필요한 액수들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가족처럼 항상 함께 기뻐해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등 신앙의 동지들이 저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도 차량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파송교회인 섬김의 교회에서 오래된 저희 가족차량(1993 년도형)의 형편을 아시고 저희 가족차량 구입 전액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먼저 학교,교회용 스타렉스차(2008 년도형)를 구입했고 이곳 선교사역에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용 차량은 얼마전 바로 학교 옆길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여, 이곳이 좀 안정되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 스페인어 말에 감사의 표현중에 하나가 "Que Dios lo pague."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감사인사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역과 차량구입을 위해 관심, 후원,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 2: 단기선교팀 방문>

이곳 선교지에서 사역 10 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과의 거리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단기 선교팀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2015 년도에 1 차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신 섬김의 교회가 이번에도 단기선교팀 (총 7 명)을 보내주셔서 9 박 10 일동안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시차, 날씨, 감기몸살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해 주셨습니다. 매일 교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후에서 학교수리에 참여하는 등 여유없는 선교사역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2015 년 단기선교팀 방문 때 처럼 이번 선교팀 방문 후 큰 영적 파장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마음속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심기어 졌고, 얼마전 4,5 살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복습하면서 이 어린 영혼들 마음에 까지 깊이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들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이번 단기선교팀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이 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족소식>

제 아내 김미순 선교사는 항상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유치원생 예배시간



기도하는 학생들



주영광교회 예배



주영광교회 여전도회



헌금으로 구입한 학교(교회)차량 (스타렉스 2008)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 월 즈음에 정기검진해야 하기에 잠시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허락이 되면 함께 한국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부분들을 진료,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사역상 오래 머물 수는 없고 한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방문은 안식년 본국사역이 아니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치료에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방문, 연락을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이영광은 지금 신학대학교 4 학년 졸업반입니다. 지금 학업, 졸업논문 및 이곳 한인교포교회 전도사 사역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 년동안 혼자 기숙사에 지내며 외로이 혼자 밥하고 손빨래하고 생활하며 잘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이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졸업한 후 한국에 들어가 군입대할 예정입니다. 이 아들이 항상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아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신실한 미래의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딸 크리스티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5 년의 이 대학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예비해 주신 신실한 신랑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사랑, 신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 훗날 저희의 선교사역의 발자국들이 후회의 발자국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라과이에서 이태호 김미순 이영광 이 크리스티나 드림-

<기도제목>

1.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쉼(CER) 미션스쿨 학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학교가 바르게 성장케 하소서.
3.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영광 현지인 교회"의 영적 숫적 부흥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4. 학교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준비된 말씀들이 되게 하소서
5. 학교, 교회, 가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소서
6. 초기 이 학교와 교회를 세우신 (고)김진호, 계속영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불들어 주소서
7. 김상원 (김진경 히엘 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이 언어, 문화적으로 잘 적응하고 미래의 선교사역을 위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8. 김미순 선교사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소서
9. 이태호선교사가 바른 리더쉽, 영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령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10. 공부 중인 이영광, 이크리스티나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소서